

사랑이라는 위대한 것 (2):당신의 인생은 어 뻗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 개인의 소명을 분별해 나가
는 여러 이야기 중 그 둘 번째
이야기.

2020-5-6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일부 문명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칼데

아인...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문화는 오늘날 우리와 멀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리적 지형은 우리 가족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까지 아브람이었습니다. 성서는 그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850년 전에 살았다고 알려줍니다. 4천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특히 미사에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그에게서 우리들의 가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역사에 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우, 하느님의 요청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1). 그가 왔을 때 : 모세, 사무엘, 엘리야스 및 다른 예언자들 ... 모두가 그들을 초대

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
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삶
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는 그들 각자가 인생에서 위대한 일
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
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
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2). 더욱이 그분은 그들 각
자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구약 성
경에는 하느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
에게 아낌 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참
조, 히브리서 11 : 1-40).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 부르심의 특성이 바뀌었습
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
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얼굴인 나자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남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안드레아...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감사하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은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분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느님께서는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에게 수천 개의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성인으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요한 묵시록 7 : 9), "역사의 주인공"인 미지의 성인들입니다.²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문을 계속 찾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예언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 43:1). 그는 이 말을 묵상하는 것은 "별집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집에서 나오는 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느

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시고, 각각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신의 이름을 하느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하늘을 보고 별을 세십시오."

위대한 성인들의 삶의 연속 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는 모두 안 좋은 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이사야 49:4).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의미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얼마

나 쉽게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
는가”라는 질문은 실패와 고통과 죽
음을 경험하면서 난파 되는 것 같습
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을 완벽하
게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
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
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
니다. 예언자는 스스로 불만을 외치
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인식합니
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
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
다 (이사야 49:6). 우리는 약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진실은 아
닙니다.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합
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약
점을 약화 시키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넓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
람들을 더 좋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
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5

신성한 부르심은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에게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소유 한 것이 아닌, 당신이 무엇 인지에 의존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당신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휴대 전화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련된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처럼 당신을 걱정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6 그분의 부르심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할 수 없는, 작은 만족에 헌신하는 사소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는 당신의 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 말도 안되는 관심 또는 사소한 야망에 우리를 구속했던 많은 사슬에서 우리 자신을 느슨하게 여깁니다."7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그 사소함에서 자유롭게 해 주

시고,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인
그분 사랑의 큰 지평을 열어 주십니
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지상 생활의 이유를 확신할 수 있
습니다. 우리의 삶, 현재, 과거와 미
래,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한 깊이
와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
건은 이제 그들의 진정한 관점에 속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
겨진 임무로 자신이 동참한다고 느낍
니다.”⁸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
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거나 중요하
지 않은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약속에 의해 신성하게 됩
니다 :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
고 (창세기 12:2) --- 당신의 삶으로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
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행
복을 펼치는 것으로 행복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

가를 요구할 때,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밝히고 의미로 채우는 분은 하느님입니다.”9

동시에, 소명의 빛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위엄으로 측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즉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이름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위엄은 진정으로 위대한, 유일한 계획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계로 측정 됩니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역사 책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영혼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만 알게 될 것입니다.”10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금!”¹¹ 그것을 더 발전 시키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을 발견 하도록 하느님께서 빛을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가 응답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형성하는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¹² 인간의 응답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촉진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걷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이 꿈꾸신 우리의 삶을 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명확한 형태를 취하는”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것은 우리의 결단력과 창의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우리가 꿈을 꾸다보면, 꿈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꿈을 꾸는 자들은 하느님과 함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

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창세기 15:5).

둘 사이에 공유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운명과 일치 시키
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기 12:3). 아브라함
의 이야기는 "공유 된 주역" 중 하나
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느님,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아
브라함의 하느님"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¹³

부르심이란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
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위한 모든
것"은 하느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

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마르코 3:14). 그러므로 우리도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임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참된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계획에 들어가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순종 하라는 권유 (참조, 요한 15 : 8). 그러므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또는 오히려: 우리에게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격려 하려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에게 처음에는

두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알려지지 않은, 더 넓은 지평, 우리를 찾는 하느님과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며,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비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침착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거의 항상 두려움과 함께 행해졌으나 침착한 성찰로 극복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의 용기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리는 초대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¹⁵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선거 때에 이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교황은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물

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연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박탈 당할 위험이 있습니까?”¹⁶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면, 우리는 삶을 자유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정 안에서만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우정 안에서만 인간 존재의 큰 잠재력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이 우정 안에서만 아름다움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¹⁷ 그리고 그는 성 요한 바오로 2 세의 조언에

자신을 일치 시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삶의 오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줄 때, 우리는 그 대가로 100 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활짝 열어 두십시오 --- 그러면 여러분도 참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18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건들을 비우라고 요구합니다."19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인들이 했던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이 길을 따름으로써, 두려움은 결국 깊은 감사에 굴복합니다: 나를 굳세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티모테오 1:12-13). 우리 모두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약점과 죄로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방해 받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직의 모토처럼 즉, *Miserando atque eligendo* (자비의 눈을 통해서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 우리의 빈약함을 간과하는 것-- 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바오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동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확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 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리피서 1:6).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오푸스 데이의 첫 번째 충실한 신앙인들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분은 먼저 도구로 쓸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²⁰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뢰의 초대입니다. 오직 신뢰만이 우리 자신의 힘과 재능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우리를 부르신

분의 힘과 재능으로 사는 경이로움,
우리 자신을 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를 때와 같이, 우리도
같은 밭줄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위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극심한 공포나 현
기증으로부터 자신을 극복 하도록 도
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신뢰를 우리 같은 사람에
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조차 말입니다. 우
리의 신뢰는 이제 언제나 “성실한 상
태를 유지하고 계신 그분 자신께 있
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
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티모
테오 2:13).

당신은 새로운 길을 만들 것 입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창세기 12:4). 그리하여 그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영원히 바꾸는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느님의 연속적인 부르심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그 곳으로 가거나, 악한 사람들에게서 도망 가고, 아들을 가질 가능성을 믿 으며, 아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심지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대답은 하느님께 계속 네 라고 말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느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지속적인 자유로 표시됩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 자유에 새로운

지평을 줄 뿐만 아니라, “무언가 훌륭한 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²¹ 또한 우리는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한 --- 또는 여행자를 놀래키지 않는 철도가 완벽하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첫 번째 부름에 대한 충성은 우리의 새로운 결정,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매일 우리의 자유를 키우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과 마찬가지로 --- 진흙이 안 묻은 날개와 작은 것들의

노예가 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대와 위대함은 아주 훌륭합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미덕의 성장이 확대되어, 우리를 더욱 우리 자신답게 만듭니다.

하느님 사업(the Work)의 초기 몇 년 동안, 호세 마리아 성인은 그에게 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여전히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세상에 열어 달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길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산을 너머, 당신의 발자국으로 길을 만들 것 입니다."22 그는 모든 성소의 "열린" 본질을 가르쳤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경작해야 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발자

국으로 길을 만드는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명확해 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발전함에 따라,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자유 사이의 훌륭한 동맹 덕분에 그 길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소명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이자, 우리를 부르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것에 사랑스럽게 응답하는 개인의 자유 사이에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입니다."23 우리의 역사는 종교적 영감에 대한 주의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

한 창의력이 서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나자렛에서 하느님께 “예”로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또한 평생 동안 그녀의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영원한 관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빛으로 가득 찬 모호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 다 (루카 2:19).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모님을 완벽한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녀에게 의탁합니다.

아스투리아스의 니콜라스 알바레즈

[1] Roman Missal, Eucharistic Prayer I.

[2] Francis, Prayer Vigil with Young People, Krakow, 30 July 2016.

[3] Friends of God, no. 312.

[4] Cf. for example, Num 11:14-15: I cannot carry all these people by myself, for they are too heavy for me. If this is the way you will deal with me, then please do me the favor of killing me at once, so that I need no longer face my distress.

And Jer 20:18: Why did I come forth from the womb, to see sorrow and pain, to end my days in shame? And also 1 Kgs 19:4: Enough, Lord! Take my life, for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5] Francis, Apost. Exhort. Gaudete et Exsultate (19 March 2018), no. 131.

[6] Francis, Homily at Closing of World Youth Day, Krakow, 31 July 2016.

[7] Friends of God, 38.

[8] Christ is Passing By, 45.

[9] Fernando Ocáriz, "Light To See, Strength To Want To," in *Aleteia*, 20 September 2018.

[10] Saint Teresa Benedicta of the Cross (Edith Stein), *Verborgenes Leben und Epiphanie*: GW XI, 145.

[11] *The Way of the Cross*, Station 5, no.2.

[12] Fernando Ocáriz, "The Vocation to Opus Dei as a Vocation in the Church," in *Opus Dei in the Church*, Scepter Publishers.

[13] Cf. Ex 3:6; Mt 22:32.

[14] Saint Josemaria, *Intimate Notes* IV, no. 296, 22 September 1931 (cited in *The Way*, critical-historical edition, commentary on no. 813).

[15] Saint John Paul II, Homily at the beginning of his pontificate, 22 October 1978.

[16] Benedict XVI, Homily at the beginning of his pontificate, 25 May 2005.

[17] Benedict XVI, Homily at the beginning of his pontificate, 25 May 2005.

[18] Benedict XVI, Homily at the beginning of his pontificate, 25 May 2005.

[19] Francis, Homily at a canonization, 14 October 2018. Cf. *Gaudete et Exsultate*, no. 32.

[20] Instruction, 19 March 1934, no. 48.

[21] Cf. Andres Vazquez de Prada, The Founder of Opus Dei, vol. I, p. 86.

[22] The Way, no. 928.

[23] Saint John Paul II, Apost. Exhort. Pastores dabo vobis (25 March 1992), no. 36.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mueonga-widaehan-geugeoseun-sarang-
ii-dangsinyi-insaengeun-
eoddaesseulggayo/](https://opusdei.org/ko-kr/article/mueonga-widaehan-geugeoseun-sarang-ii-dangsinyi-insaengeun-eoddaesseulggayo/) (2026-1-20)